

히트곡 제조기, 김이나 작사가가 전하는 ‘언어의 힘’

‘ACC 도서관 북토크’ 18일 문화정보원 극장3 말의 가치 조명...‘보통의 언어들’ 도서원화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조용필의 ‘겉과 속’과 아이유의 ‘좋은 날’, 브라운아이즈의 ‘Abacadabra’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300여 곡의 히트곡을 작업한 김이나 작사가. 현재 MBC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예세이집 ‘김이나의 작사법’,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등을 펴낸 김 작사가가 ‘ACC 도서관 북토크’에서 저서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만나 일상 속 언어의 의미를 살펴본다.

‘일상을 다정한 빛깔로 채워가는 말과 태도’라는 주제로 이뤄질 이번 북토크에서는 김 작사가가 지난 2023년 펴낸 ‘보통의 언어들’을 바탕으로 강연한다. ‘보통의 언어들’은 사랑, 실망, 위로 등 누구나 겪는 감정을 따뜻하고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로, 일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의 고민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동시에, 노랫말을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언어의 힘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예정이다.

강연과 함께 ‘ACC 도서원화전: 보통의 언어들 일러스트전’도 마련된다. ‘보통의 언어들’의 포스트 에디션의 표지와 삽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에서는 함주해 일러스트레이터의 섬세한 감정과 따뜻한 시선을 담은 작품과 책 속 문장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함 작가는 자연과 사람, 일상의 순간을 차분한 색채와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해 숲과 자연의 이미지를 활용한 감성적인 화면 구성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책 속 문장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마주하고, 그림을 통해 다시 언어의 의미가 되새기며 ‘보통의 언어’가 시각적 감성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움받을 용기’, ‘책상은 책상이다’, ‘낙타 소년’, ‘모과’ 등 다양한 도서의 삽화를 작업했으며,

그림 에세이 ‘속도의 무늬’를 출간했다. 또한 ‘패스트 라이브즈’, ‘드라이브 마이카’, ‘해피 아워’, ‘Money Up’ 등 영화 포스터 작업에도 참여했다. ‘ACC 도서관 북토크’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ACC 도서원화전’은 오는 6월14일까지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북토크에서는 선착순 50명 한정 사전회가 진행, 저자 사인본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김상욱 전담장은 “4월은 도서관주간(4.12~4.18)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이 있는 달”이라면서 “ACC 북토크와 도서원화전을 통해 좋은 글의 감동을 시각적으로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밝은안과21병원, 차세대 인공수정체 도입 국내 최초 ‘클라레온 팬옵티스 프로’...맞춤 의료 최선

밝은안과21병원은 글로벌 안과 의료가 전문 기업 알콘(Alcon)의 차세대 인공수정체인 ‘클라레온 팬옵티스 프로(Clarion PanOptix Pro)’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라레온 팬옵티스 프로는 기존 클라레온 팬옵티스의 장점을 기반으로 성능을 한층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대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삼중초점 인공수정체다.
특히 빛 에너지 활용도를 94%까지 끌어올려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등 전 구간에서 보다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초점 거리 전환 시 시야 깜빡임을 최소화

화해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시야를 구현하고 빛 산란을 줄이고 대비 강도를 향상시켜 일상 속 사물의 형태를 더욱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
김주엽 밝은안과21병원 대표원장(사진)은 “클라레온 팬옵티스 프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인공수정체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기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목포해양대학교와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인재 양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북극항로 대비 협력체계 구축

목포해양대와 업무협약 체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세계로’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인재 양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허브항만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는 북극항로 및 친환경 선박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여수해수청은 보유한 항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정태성 여수해수청장은 “이번 협약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다”며 “교육·연구와 항만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목포=이훈희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정서운 헤림테이블 대표,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202호 회원...‘나눔문화 동참’ 5년간 1억원 기부 약정 등 실천

정서운 헤림테이블 대표가 광주지역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02호 회원에 가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문화관에서 정서운 헤림테이블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이상철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임순이 광주 사랑의열매 부회장, 최무진 사무총장 및 집행부 임원, 정서운 아너의 아들인 이수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및 가족, 지인 등이 참석해 광주 202호이자 전국 3913호 회원 탄생을 축하했다.
정 대표는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한 기업 활동을 이어나 사업가로, 이번 가입을 통해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그는 헤림복지재단 이사, 헤림장학재단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광주사랑의열매 나눔문화관에서 정서운 헤림테이블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부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공헌 및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서운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려움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항상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과 같은 큰 나눔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제길 회장은 “경기 참여 속에서 나눔에 동참해 감사하다”며 “아너 소사이어

티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외식문화 확산’ 앞장

5개 자치구 주요 상권·밀집 지역 순회 캠페인

광주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주요 역세권과 상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지난 3월1일부터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식물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음식점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음식점 제도·등록 절차 안내, 영업자·이용객 준수사항과 위생 지침(가이드라인) 홍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베틀켓) 안내 등을 진행한다.
음식점 영업자들에게는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배부해 실질적인 제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과 지원 사업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7일까지 5일간 주요 역세권과 상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과 함께하는 외식환경 조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영업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2월 27일)

48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겠다
60년생 재물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72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84년생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다
96년생 몸이 상할 우려 있으니 다투지 말라
51년생 형사 검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63년생 행운 있는 날이지만 지리를 조심하라
75년생 귀인이 도와주는 운이지만 송사 조심
87년생 강력히 추진하라
99년생 고일은 귀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54년생 배려하면 꼬인 일도 풀린다
66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78년생 업무에 실수를 많이 하는 날
90년생 주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57년생 별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마라
69년생 득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81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93년생 이로운이 전개된다

49년생 지금 회전에 비상이 걸릴 운
61년생 남자의 유혹에 동조하면 될 일도 안된다
73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야 큰 것을 얻는다
85년생 연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라
97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52년생 빛 속속으로 상심하게 된다
64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집중하고 있어라
76년생 남비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아껴 두라
88년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55년생 매사 순조로운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67년생 휴식이 필요한 때, 여행을 다녀와라
79년생 참지 못해 불화를 일으키니 참아라
91년생 바라는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다
58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70년생 당장 이득은 없어도 좋은 일로 이어진다
82년생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94년생 한 우물을 파라

50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62년생 방법을 달리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74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86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98년생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53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65년생 계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77년생 상호간 불기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89년생 신중하게 말해야 아무 문제가 없다
56년생 먼저 손해보고 뒤에 얻는 운
68년생 일은 성공하지만 배우자와 갈등 있다
80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
92년생 땅 짚고 헤엄치는 날이다
59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71년생 사업 시작이나 관한 것을 바라지 마라
83년생 알뜰·보충이 평소 나는 운
95년생 고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때